

국어가 어렵다고 합니다.
문법이 자꾸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국어 문법은 오랫동안 배워도 늘 새롭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외웠던 개념도 자꾸 까먹게 됩니다.

자이스토리 언어(문법) 기본은
문법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암기 방법을 찾아서
단계별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필수 문법 개념을 쉽게 풀이하고,
일상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문을 담았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예문을 활용한 개념 완성 TEST를 수록하여
학습한 개념을 내신, 학평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문제의 풀이 과정을 시각화한 1등급 대비 문제 특강을 통해
고난도 문제의 해법을 빨리 찾고, 어떤 유형의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
문법 실력이 오르고 국어가 쉬워지는 자이스토리로 재미있게 공부해 보세요.
문제가 술술 풀리고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쌓여
반드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25일]

Day	페이지	틀린 문제 / 헛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12~19		월 일	월 일
2	B 20~30		월 일	월 일
3	C 31~39		월 일	월 일
4	40~D 50		월 일	월 일
5	51~61		월 일	월 일
6	62~E 73		월 일	월 일
7	F 74~81		월 일	월 일
8	G 82~90		월 일	월 일
9	H 91~101		월 일	월 일
10	102~I 111		월 일	월 일
11	112~120		월 일	월 일
12	J 121~132		월 일	월 일
13	K 133~145		월 일	월 일
14	L 146~154		월 일	월 일
15	M 155~N 165		월 일	월 일
16	166~O 175		월 일	월 일
17	176~184		월 일	월 일
18	P 185~195		월 일	월 일
19	Q 196~R 205		월 일	월 일
20	S 206~215		월 일	월 일
21	216~T 227		월 일	월 일
22	228~239		월 일	월 일
23	240~251		월 일	월 일
24	252~262		월 일	월 일
25	U 264~278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공보운 경기 성호고등학교
김호진 경기 현화고등학교
노승연 서울 경기고등학교
노준철 경기 서해고등학교
문지혜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배지은 서울 창동고등학교

송현우 서울 신목고등학교
신다은 서울 염광고등학교
안다성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이세영 경기 수일고등학교
조연원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최슬지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최용창 경기 심석고등학교
한수연 경기 동탄국제고등학교
한혜령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허예현 경기 평택여자고등학교
수경출판사 국어 콘텐츠 연구소

최신 37개년 기출문제 동영상 강의

자이스토리 유튜브 채널 **한보람 선생님**



[감수진]

강경희 고양 진정성국어학원
강수진 목포 강쌤국어
강연구 춘천 페르마 학원
강지수 부산 수수국어학원
곽동훈 서울 곽동훈국어학당
곽은애 서울 (주)압구정명문학원
권은영 울산 시나브로국어논술
금정원 대구 델타학원
기경민 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
김도연 서울 사과나무학원
김서령 광주 서령국어
김세희 순천 순천금당고등학교
김수련 광주 와와학습코칭센터 진월점
김요셉 서울 대치SEP국어
김정호 군산 김정호국어입시연구소
김지은 청주 올원스터디랩 입시학원
김태현 인천 인해담국어학원
김휘승 서산 고수학원
문세원 김포 고촌고등학교
박선아 부산 대신이룸학원
박수영 서울 은평대치국어학원
박수인 서울 은평 탑학원

박유빈 세종 너희가꽃이다 입시학원
박유진 화성 파란국어
박정선 서울 가온누리 국어학원
박지현 서울 김종길국어논술학원
박지혜 천안 천안중앙고등학교
박현규 서울 영훈고등학교
배성현 인천 국어논술자신감
배유현 창원 청솔학원
배탐스 안양 삼성학원
송윤정 안양 평촌 대시나무국어학원
양은해 고양 이안의학원
양지은 서울 흐름과파도 글쓰는서재국어
오유진 부산 유진아 국어 학원
유시준 서울 목동강국어수학과학학원
이가윤 청주 서원고등학교
이기용 연천 연천고등학교
이선영 천안 천안중잉고등학교
이예원 서울 송파지니국어논술학원
이은설 서울 수도여자고등학교
이은영 고양 이은영 국어학원
이태희 광주 울스터디학원
이혜원 부산 청어람학원

임지혜 거제 파스칼에듀학원
장수진 청주 이레 국어교습소
장연희 대구 규장각 국어
전국주 용인 고림중학교
전현주 진주 경상대사대부설고등학교
전현표 부산 제일학원
정민경 아산 가온국어 교습소
정서은 부산 정서은 국어논술
정승호 성남 두각학원
정지연 서울 강동국어교습소
조우현 서울 조지형국어학원
조진희 성남 미래탐구분당고등관
조효숙 광주 첨단 눈높이월계학원
채수만 고양 백양고등학교
채혜지 구미 김선일국어학원
최 강 대전 미담국어논술학원
최복규 서울 기승전국어
최소형 하남 꿈자락국어
최예인 청주 최예인국어
최현애 화성 플랜A입시학원
한재환 안양 JS EDU
황규연 서울 한울국어학원

차 례

PART I 음운

A 국어의 음운 체계

개념 01 국어의 음운 체계	12
개념 02 국어의 자음 체계	14
개념 03 국어의 모음 체계	16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18

B 음운 변동 I - 음운 교체

개념 04 음운 교체	20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26

C 음운 변동 II - 음운 탈락 · 첨가 · 축약

개념 05 음운 탈락	31
개념 06 음운 첨가	33
개념 07 음운 축약	33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37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38

PART II 단어

D 단어의 구조와 형성

개념 08 단어와 형태소	48
개념 09 단어의 형성	51
개념 10 복합어	53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58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59

E 품사 I - 체언, 용언

개념 11 품사의 분류 기준	64
개념 12 체언	64
개념 13 용언	66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70

F 품사 II -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개념 14 수식언	74
개념 15 관계언과 독립언	76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78

G 단어의 의미 관계

개념 16 어휘의 체계와 양상	82
개념 17 단어의 의미 관계	84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88

H 사전 활용

개념 18 사전 활용	91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94

PART III 문장과 담화

I 문장 성분

개념 19 문장의 구성 단위와 문장 성분	108
개념 20 주성분	108
개념 21 부속 성분	112
개념 22 독립 성분	114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116

J 문장 구조

개념 23 홀문장과 겹문장	121
개념 24 이어진문장	121
개념 25 안은문장	125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127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128

K 문법 요소 I - 종결 · 높임 · 시간 표현

개념 26 종결 표현	133
개념 27 높임 표현	135
개념 28 시간 표현	138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140



L 문법 요소 II – 피동 · 사동 · 부정 · 인용 표현

개념 29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146
개념 30 부정 표현	148
개념 31 인용 표현	148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150

M 정확한 문장 표현

개념 32 정확한 문장 표현	155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157

N 담화

개념 33 담화의 개념과 요소	162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164

PART IV 어문 규정

O 한글 맞춤법

개념 3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170
개념 35 소리에 관한 것	170
개념 36 형태에 관한 것	172
개념 37 띄어쓰기	174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176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177

P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

개념 38 표준 발음법 총칙과 모음 · 받침의 발음	185
개념 39 음의 동화와 첨가	187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189

Q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념 40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96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198

PART V 국어의 역사

R 한글의 창제 원리

개념 41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200
개념 42 한글의 창제 원리	202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204

S 중세 · 근대 · 현대 국어의 비교

개념 43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206
개념 44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209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11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212

PART VI 지문 세트 유형

T 현대 국어 단독 유형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24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226

U 중세 · 근대 · 현대 국어의 비교 유형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264
---------------------	-----

문제를
풀면서
개념어 +
어휘 총정리
〈교재 맨 뒤쪽〉

개념어 + 어휘 총정리	279
문법 개념 찾아보기	290

빠른 정답 찾기	296
----------------	-----



필수 개념 정리와 개념 훈련 문제로 내신+학평 1등급 완성

1 국어 문법 개념 세분화 · 시각화

- 빈출 개념과 심화 개념을 수록하여 문법 전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문법 개념을 시각적으로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개념 완성 TEST

- 기출 선택지와 자료로 구성된 문제를 통해 자주 출제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 문제, 빈칸 채우기, 선 긋기 문제, 단답형 주관식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C 음운 변동 II - 음운 탈락 · 첨가 · 축약

핵심 05 음운 탈락

• 두 음운 중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 자음군 단순화와 자음 탈락 ('ㄹ' 탈락, 'ㅇ' 탈락), 모음 탈락 ('-ㅓ' 탈락, 'ㅏ/ㅑ' 탈락) 등이 있다.

1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에 접반침(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ㄹ, ㄷ, ㄹ, ㄷ, ㄹ, ㄷ, ㄹ)이 올 때에는 두 개의 자음 가운데 하나가 탈락한 후 대표음(ㄱ, ㄴ, ㄷ, ㄹ, ㄴ, ㄹ, ㄴ, ㄹ) 중 하나로 발음된다.

1. 앞 자음이 소리 나는 접반침(앞 자음이 탈락함.)

ㄱ → ㄱ	ㄷ → ㄷ	ㄴ → ㄴ	ㄹ → ㄹ
ㄴ → ㄴ	ㄷ → ㄷ	ㄴ → ㄴ	ㄹ → ㄹ
ㄹ → ㄹ	ㄷ → ㄷ	ㄴ → ㄴ	ㄹ → ㄹ

2. 뒤 자음이 소리 나는 접반침(뒤 자음이 탈락함.)

ㄱ → ㄱ	ㄷ → ㄷ	ㄴ → ㄴ	ㄹ → ㄹ
ㄴ → ㄴ	ㄷ → ㄷ	ㄴ → ㄴ	ㄹ → ㄹ
ㄹ → ㄹ	ㄷ → ㄷ	ㄴ → ㄴ	ㄹ → ㄹ

3. 위와해야 할 접반침의 발음

기출 선택지와 자료로 구성 개념 완성 TEST

핵심 05 음운 탈락

1 자음군 단순화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01 음절의 끝소리에 접반침이 올 때 두 개의 자음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을 ()이라고 한다.

02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ㄹ, ㄷ, ㄹ, ㄷ, ㄹ, ㄷ, ㄹ' 자음이 탈락하고, 'ㄱ, ㅋ, ㆁ, ㄷ, ㅌ, ㄴ, ㄹ' 자음이 탈락한다.

03 자음군 단순화는 음운 변동의 유형 중에서 두 음운 중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인 ()에 해당한다.

04 다음 중 (보기)의 표준 발음법 규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보기]
[제10항] 접반침 'ㄱ, ㅋ, ㆁ, ㄷ, ㅌ, ㄴ,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으로 발음한다.

① 그녀는 마음이 **넉넉**하다.
② 그는 **넉넉**이 웃었다.
③ 그 책을 **넉넉**이 본 적이 있다.
④ 가게 앞에 **넉넉**한 남자가 있다.
⑤ 그는 시련의 아픔을 **넉넉**히 지냈다.

07 '넉넉'은 접반침 'ㄱ' 중 () 자음 때문에 ()으로 발음한다.

2 자음 탈락

•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단어에 들어나는 음운 탈락과 () 중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 '넉' 탈락: 어간 끝 반침 'ㄱ'은 'ㄴ, ㄷ' 등으로 사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 'ㅇ' 탈락: 어간의 끝소리 'ㅇ'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한다.

08 자고 나니 눈이 **뽀뽀** 있었다. ()
09 친구들과 **노는** 곳으로 아버지가 오셨다. ()
10 하늘을 가르며 **나는** 비행기가 보였다. ()
11 공부하기 **싫어도** 참고 꾸준히 해야 한다. ()

3 모음 탈락

3 최신 10개년 고1 · 2 학평 기출문제 -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 2023~2014학년도 10개년 고1, 2 학평 평가 진 문항을 수록했습니다.
- 최신 3개년 기출문제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내신 시험과 학력평가, 수능 모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R코드 : 3개년 기출 동영상 강의



- 난이도: ☆ 1등급 대비 - 최상, ☆☆☆ - 상, ☆☆☆ - 중, ☆☆☆ - 하
 - 출처 표시: 수능, 평가원-대비 연도, 학력평가-실시 연도
- 예) 2022 실시 3월 학평 11(고1): 2022년 3월에 실시한 고1 대상 학력평가 2018(6월)/고2교육청 11: 2018년 6월에 실시한 고2 대상 학력평가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핵심 05 음운 탈락

C02 ☆☆☆ 2017(3월)/고1교육청 13
다음은 음운 변동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음운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인 '탈락', 있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인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인 '축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국립]'과 '꽃[꽃]'에서는 각각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났을까요?

C04 ☆☆☆ 2019 실시 11월 1
다음은 사전 활용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보기)의 학습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우리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를 통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발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음의 발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이'와 '이' 활용 정보에 제시됩니다. 활용 정보에는 비구개음화가 일어날 때의 발음도 제시되어 있어 구개음화의 경우에는 연음될 때의 발음에 대한 <도기> 이해 역시 '도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 1등급을 결정하는 고난도 문제의 해결 방법을 특강으로 자세하고 쉽게 풀어서 제시합니다.
- 세부 개념별 대표 유형의 출제 원리를 분석한 대비책으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음운 변동 파악하기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C01 ☆ 1등급 대비 2023 실시 6월 학평 13 (고2)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적절히 것은?

[보기]
선생님: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있습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있는 대로 모두 찾고 음운 개수의 변화를 정리해

[보기 분석]
음운 변동의 유형
음운 개수의 변화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T01 ☆ 1등급 대비 2023 실시 6월 학평 11 (고2)
첫글을 읽고 보인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형사는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② 관형사와 관형어는 모두 체언을 꾸며 주는군.
③ 관형어가 항상 관형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④ 두 명사가 나란히 올 때 앞 명사는 관형사가 될 수 있다.
⑤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관형사가 될 수 없다.

관형사와 관형어 파악하기

[T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자는 공통된 성질이 있는 단어끼리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뜻하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를 뜻한다. 관형사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해당 체언을 꾸며 주는 품사이고,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으로써, 서로 문법 단위가 다르다. 그런데 관형사나 관형어는 이름과 그 기능이 서로 유사하여,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관형사는 단어의 성질 자체가 체언의 수식에 있고, 문장 성분으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관형어는 관형사로부터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관형사 이외에도 체언과

문제 유형 분석

문제 유형을 제시하여 능형 문제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택률

선택률을 통해 매력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분석

문제가 의미하는 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글의 제목

지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글의 제목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 풀이

중요 내용에 해석을 달아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문 어휘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휘의 풀이를 제시했습니다.

출제

지문 내용 중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표시하여 핵심 출제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지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해 놓았습니다.

문단 요약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적인 지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강

해당 문법 개념과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여 유사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매력 오답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선택지 첨삭 해설

선택지만으로도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꼼꼼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문단 요약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적인 지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강

해당 문법 개념과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여 유사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매력 오답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문단 요약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적인 지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강

해당 문법 개념과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여 유사 문제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매력 오답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문항 배열 및 구성 [408제+1,084제]

①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개념 완성 TEST 수록

-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스스로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출 선택지를 변형한 확인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1,005문항)

② 언어(문법) – 최신 10개년 고 1·2 학력평가 전 문항 수록

- 최신 10개년(2023~2014) 고 1·2 학력평가 전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406문항)
- 단원별 학습에 필요한 고3 우수 문항을 선별 수록하였습니다.(2문항)

③ 1등급 대비 문제 선별 및 1등급 대비 문제 풀이 특강 수록

- 고난도 문제를 선별하여 표시하고, 1등급 대비 문제 특강을 수록하여 문제 풀이 과정을 익히고 단원별 고난도 유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개념 ➡ 개념 완성 TEST ➡ 내신 · 학평 기출문제 단계별 수록

-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 완성 TEST로 자주 출제되는 용례에 개념을 적용한 뒤 학평 기출문제로 실력을 다지도록 구성하여 수능 국어 1등급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이스토리 국어 언어(문법) 기본 문항 구성표 1,492제]

실시 연도		3월	6월	9월	11월	합계
2023	고2	5	5	5		30
	고1	5	5	5		
2022	고2	5	5	5	5	40
	고1	5	5	5	5	
2021	고2	5	5	5	5	40
	고1	5	5	5	5	
2020	고2	5	5	5	5	40
	고1	5	5	5	5	
2019	고2	5	5	5	5	40
	고1	5	5	5	5	
2018	고2	5	5	5	5	40
	고1	5	5	5	5	
2017	고2	5	5	5	5	40
	고1	5	5	5	5	
2016	고2	5	5	5	5	40
	고1	5	5	5	5	
2015	고2	5	5	5	5	40
	고1	5	5	5	5	
2014	고2	9	9	9	9	56
	고1	5	5	5	5	
고3 우수 문항						2
개념 완성 TEST						1,084
총 문항 수						1,492



자이스토리 국어 언어(문법) 기본 활용법+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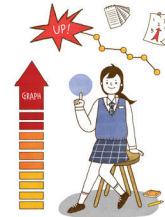
① 세분화된 개념을 꼼꼼하게 학습하고, 개념 완성 TEST로 점검해 봅시다!

- 문법 개념의 풀이와 주요 예시를 관련지어 암기해 두세요, 시험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 자주 출제되는 예시를 바탕으로 구성된 개념 완성 TEST로 개념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한눈에 보는 문법 개념 지도를 바탕으로 학습한 개념을 구조도나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하세요. 머릿속에 각인되어 학습 효과가 오래 지속될 거예요.



② 개념별 최신 기출문제로 학교 시험과 학력평가에 대비하세요.

- 개념 완성 TEST로 개념을 이해했다면 최신 기출문제로 난도를 높여가면서 해당 개념 관련 문제를 풀어보세요. 개념별로 최신 유형의 문제를 모두 수록한 자이스토리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 1등급 대비 문제로 선별된 문제를 통해 어려운 문제에도 도전해 보세요. 내신과 수능 모두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어요.



③ 최신 3개년 기출문제는 동영상 강의로 실력을 다져 보세요.

- 문법 영역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있어요. 최신 3개년 기출문제의 동영상 강의를 보고 각 유형의 문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접했을 때 자신감 있게 풀어낼 수 있답니다.
- 최신 3개년 학력평가에 출제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필수 개념을 꼭꼭 짚어주는 동영상 강의로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모든 문법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어요.



④ 입체 첨삭 해설까지 꼭 확인하고 다시는 틀리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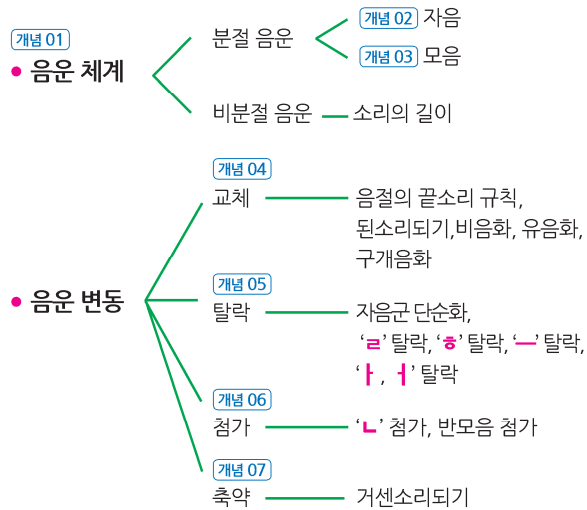
- 단순히 정답만 확인하는 것은 이제 그만! 해설을 통해 자신의 풀이 과정을 점검해 보세요. 틀린 문제와 짚어서 맞힌 문제는 꼭 다시 풀어 봐야 합니다.
-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문제 분석, 지문 근거, 선택지 첨삭 해설 등)도 잊지 말고 살펴보세요.





한눈에 보는 문법 개념 지도

I 음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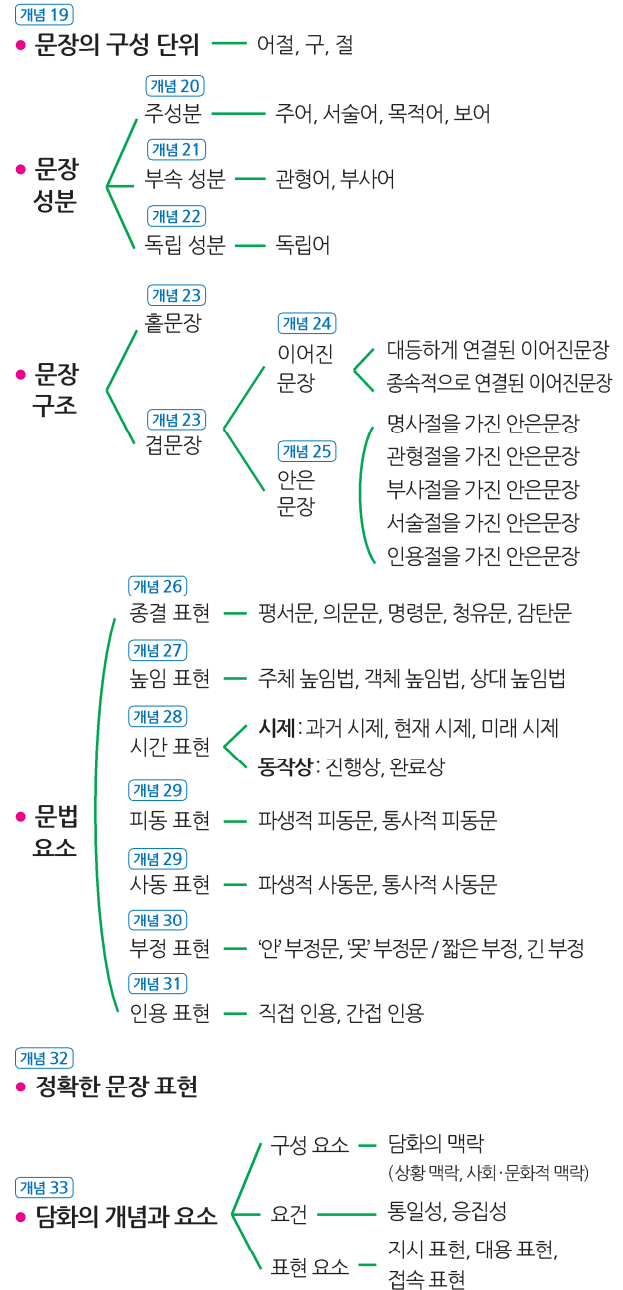
II 단어



V 국어의 역사

- 고대 국어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 개념 41
- 중세 국어
 - 한글의 창제 원리 — 개념 42
 - 표기 / 음운 / 문법 / 어휘 — 개념 43
- 근대 국어 — 표기 / 음운 / 문법 — 개념 44

III 문장과 담화



IV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 개념 34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총칙)
 - 개념 35 소리에 관한 것
 - 개념 36 형태에 관한 것
 - 개념 37 띄어쓰기
- 표준어 규정
 - 표준어 사정 원칙
 - 개념 38~39 표준 발음법
- 개념 40 외래어 표기법
- 개념 4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I

음운

A 국어의 음운 체계

B 음운 변동 I

C 음운 변동 II

★ 개념 차례

A 국어의 음운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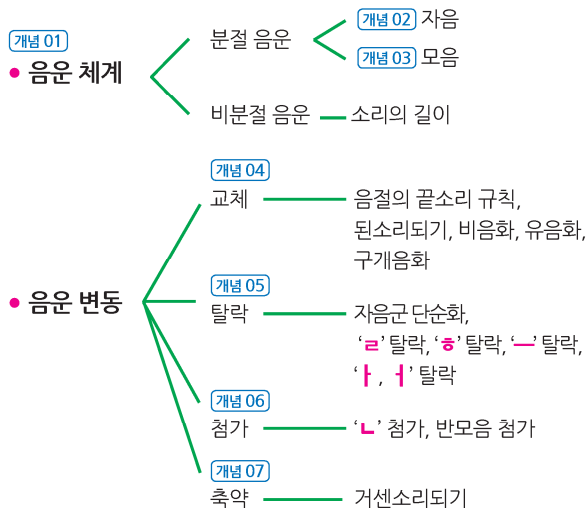
- 개념 01 국어의 음운 체계
- 개념 02 국어의 자음 체계
- 개념 03 국어의 모음 체계

B 음운 변동 I

- 개념 04 음운 교체

C 음운 변동 II

- 개념 05 음운 탈락
- 개념 06 음운 첨가
- 개념 07 음운 축약



★ 최신 2개년 고1·2 학력평가 출제 경향

실시연도	출제 개념	난이도
2023년 (9월)	고2 출제되지 않음.	—
	고1 음운 변동 교체(된소리되기, 구개음화), 첨가(ㄴ 첨가), 축약(거센소리되기)	**
2023년 (6월)	고2 음운 변동 교체(된소리되기, 유음화, 비음화), 탈락(ㅎ 탈락), 첨가(ㄴ 첨가), 축약(거센소리되기)	***
	고1 음운 교체(유음화)	**
2023년 (3월)	고2 지문 세트 유형으로 출제	—
	고1 최소 대립쌍	**
2022년 (11월)	고2 음운 변동 교체(비음화, 된소리되기), 탈락(자음군 단순화), 첨가(ㄴ 첨가), 축약(거센소리되기)	**
	고1 음운 교체(구개음화)	**
2022년 (9월)	고2 음운 변동 교체(비음화, 된소리되기), 탈락(자음군 단순화)	**
	고1 음운 변동 교체(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비음화), 첨가(ㄴ 첨가), 탈락(ㅎ 탈락, 자음군 단순화)	**
2022년 (6월)	고2 받침 ‘ㅎ’의 발음	**
	고1 지문 세트 유형으로 출제	—
2022년 (3월)	고2 받침 ‘ㅎ’의 발음	*
	고1 받침의 발음	**
2021년 (11월)	고2 음운 변동 교체(비음화, 된소리되기), 탈락(자음군 단순화), 첨가(ㄴ 첨가), 축약(거센소리되기)	***
	고1 음운 교체(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

★ 최신 출제 경향 분석 및 대비

- 2023학년도 고1·2 학력평가에서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구분하고 음운의 개수 변화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다.
- 자주 출제되는 음운 변동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체: 자음 동화(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 탈락: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 첨가: ㄴ 첨가 / 축약: 거센소리되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와 같이 받침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였다.
- 음운 변동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음운 변동의 양상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와 적용하여 각 음운 변동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A 국어의 음운 체계

개념 01 국어의 음운 체계

1 음운

- 1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 2 최소 대립쌍을 통해 음운을 파악할 수 있다.



불



풀



벌



발



벌



블

→ 첫소리 'ㅂ, ㅍ, ㅃ'이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따라서 '불-풀', '불-벌', '풀-벌'은 최소 대립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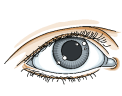
→ 가운데소리 'ㅌ, ㄷ, ㄱ'이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따라서 '발-벌', '발-벌', '벌-블'은 최소 대립쌍이다.

2 음운의 종류

1. 분절 음운: 실질적인 소릿값이 나뉘어 분리되는 음운
 - (1) 자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방해로 받아서 나는 소리
 - (2) 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2. 비분절 음운: 실질적인 소릿값이 나뉘어 분리되지 않고 분절 음운에 얹혀서만 실현되는 음운
 - * 소리의 길이(장단): 말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눈(雪) [눈:]



눈(眼) [눈]



말(言) [말:]



말(馬) [말]



밤(栗) [밤:]



밤(夜) [밤]

1 음성과 음운

음성: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말소리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음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소리

2 최소 대립쌍

의미를 변별하게 하는 음운을 가진 단어들의 쌍

예 '밥'과 '밤'은 끝소리 'ㅂ'과 'ㅃ'에 의해 의미가 달라짐. 따라서 '밥-밤'은 최소 대립쌍임.

★ 언어마다 다른 음운

고기[kogi]	
'고'의 'ㄱ' [k]	어말, 자음 앞에서 무성음으로 발음됨.
'가'의 'ㄱ' [g]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발음됨.

'고기'에서 'ㄱ'과 같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는 것을 변이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어 사용자들은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별하는 영어 사용자와 달리 이 두 소리를 의미 차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이렇듯 음운은 각각의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 언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포함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말소리 또는 문자 등의 형식과 형식에 포함된 의미가 결합되어 나타남.



* 언어의 특성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내용인 '의미'와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인 '말소리'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음.
언어의 사회성	말소리와 의미는 사회의 인정을 통해 관습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결합은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약속임.
언어의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의 의미나 말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라지기도 하며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함.
언어의 분절성	언어를 통해 연속적인 대상이나 개념을 분절적으로 인식하게 됨.

참고

3 긴소리의 발음

긴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며 둘째 음절 이하에 오면 짧은소리로 발음된다.

예 한국 + [말:] → 한국말[한궁말]
함박 + [눈:] → 함박눈[함방눈]

음문



음운 변동 파악하기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03 DAY

C01 ★ 1등급 대비 2023 실시 6월 학평 13 (고2)



〈보기〉는 음운 변동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있습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음운 개수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제시된 단어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있는 대로 모두 찾고 음운 개수의 변화를 정리해 볼까요?

단어	음운 변동 종류	음운 개수의 변화
① 국밥[국궂]	첨가	하나가 늘어남.
② 똥는[똥른]	교체, 탈락	하나가 줄어듦.
③ 막내[망내]	교체, 축약	하나가 줄어듦.
④ 물약[물락]	첨가	하나가 늘어남.
⑤ 밭힌[발핀]	축약	변화 없음.



| 보기 분석 |

음운 변동의 유형	음운 개수의 변화
교체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뀜. ○ → □	변화 없음.
탈락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짐. ○ + □ → ○	줄어듦.
첨가 새로운 음운이 생김. ○ + □ → ○ + ▲ + □	늘어남.
축약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짐. ○ + □ → ▲	줄어듦.

| 선택지 분석 | [① 6% ② 38% ③ 5% ④ 35% ⑤ 12%]

음운 변동의 유형	음운 개수의 변화
① 국밥 → [국궂] ㅂ → () 된소리되기 (교체)	(변화 없음 / 줄어듦 / 늘어남)
② 똥는 → [똥른] → [똥르ㄴ] ㅈ → ㄹ (자음군 단순화 (탈락)) ㄹ + ㄴ → ㄹ + () (유음화 (교체))	(변화 없음 / 줄어듦 / 늘어남)
③ 막내 → [망내] ㄱ + ㄴ → () + ㄴ (비음화 (교체))	(변화 없음 / 줄어듦 / 늘어남)
④ 물약 → [물낙] → [물락] 'ㄴ' 첨가 (첨가) ㄹ + ㄴ → ㄹ + () (유음화 (교체))	(변화 없음 / 줄어듦 / 늘어남)
‘물약’은 자음으로 끝나는 ‘물’과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약’의 합성어로 [ㄴ]이 첨가된 후 이 [ㄴ]이 앞말의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된다. (참고)	
⑤ 밭힌 → [발핀] ㅂ + ㅎ → () 거센소리되기 (축약)	(변화 없음 / 줄어듦 / 늘어남)

★ 음운 개수의 변화를 파악하는 문제 풀이 TIP

- 표기와 발음을 일대일로 비교하여 음운 변동의 양상을 파악한다.
- ‘교체’: ±0, ‘첨가’: +1, ‘축약·탈락’: -1으로 구분한다.
-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경우 ②를 합쳐 계산한다.

특강

정답

‘똥르ㄴ’ ㉠

‘국궂’ ㉡ ‘똥르ㄴ’ ㉢ ‘똥르ㄴ’ ㉣ ‘똥르ㄴ’ ㉤ ‘똥르ㄴ’ ㉥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개념 05 음운 탈락

C02 *** 2017(3월)/고1교육청 13

다음은 음운 변동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음운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인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인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인 '축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물[궁물]'과 '뭇[목]'에서는 각각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날까요?

- | | | | |
|------|----|------|----|
| 국물 | 뭇 | 국물 | 뭇 |
| ① 교체 | 탈락 | ② 교체 | 첨가 |
| ③ 탈락 | 축약 | ④ 첨가 | 교체 |
| ⑤ 첨가 | 탈락 | | |

C03 *** 2022 실시 9월 학평 13(고2)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국어의 음절 종성에서는 자음을 두 개 발음할 수 없다. 따라서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다른 형태소가 결합하면 자음군 단순화와 더불어 다른 음운 변동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닭만[당만]'은 ㉠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 해당하고, '맑지[막찌]'는 ㉡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 ㉠ | ㉡ |
| ① 값만[감만] | 흙과[흑파] |
| ② 잃는[일른] | 옳고[읍꼬] |
| ③ 덮지[덱찌] | 밝혀[발켜] |
| ④ 밝는[밤:는] | 닭다[닥따] |
| ⑤ 짚어[절머] | 짧지[짤찌] |

C04 *** 2019 실시 11월 학평 15(고1)

다음은 사전 활용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보기〉의 학습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우리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정보를 통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체언의 발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음될 때의 발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이'와의 결합형이 활용 정보에 제시됩니다. 활용 정보에는 비음화와 구개음화가 일어날 때의 발음도 제시되어 있으며, 구개음화의 경우에는 연음될 때의 발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 '을'과의 결합형도 제시됩니다.

〈보기〉

낮 발음: [난]

활용: 낮이[나치], 낮만[난만]

「명사」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의 바닥

발 발음: [반]

활용: 발이[바치], 발을[바틀], 발만[반만]

「명사」 물을 대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야채나 곡류를 심어 농사를 짓는 땅

흙 발음: [흑]

활용: 흙이[흑기], 흙만[흑만]

「명사」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는, 무기물과 유기물이 섞여 이루어진 물질

- ① '낮'의 경우 발음 정보를 통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흙'의 경우 발음 정보를 통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낮'과 '발'은 모두, 활용 정보를 통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발'과 '흙'은 모두, 활용 정보를 통해 연음될 때의 발음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낮', '발', '흙'은 모두, 활용 정보를 통해 비음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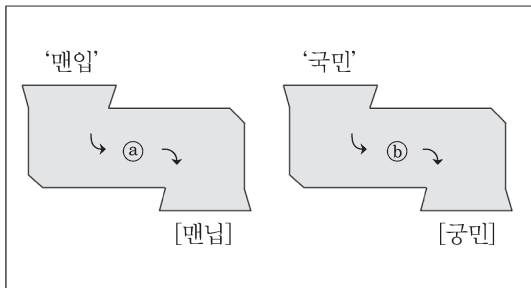
C05

2017(3월)/고2교육청 11

〈보기〉의 설명에 따를 때, 음운 변동 ㉠, ㉡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다음은 ‘맨입’과 ‘국민’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맨입’은 음운 변동 ㉠이 일어나 [맨닙]으로 발음되고, ‘국민’은 음운 변동 ㉡이 일어나 [궁민]으로 발음된다.



- ① 막일 ② 담요 ③ 낙엽 ④ 곡물 ⑤ 강약

C06

2017(9월)/고2교육청 13

〈보기〉의 활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활동 과제]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이 있다.

- ㉠: 교체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첨가 -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탈락 -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과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을 ㉢~㉤ 중에서 골라
보자.

불여우 → [불녀우] → [불려우]

- | | | |
|---|----------|----------|
| | <u>Г</u> | <u>Л</u> |
| ① | а | а |
| ② | а | б |
| ③ | б | а |
| ④ | б | с |
| ⑤ | с | д |

C07

2017(6월)/고1교육청 11

〈보기〉의 (ㄱ)과 (ㄴ)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음운 변동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첨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로 되는 ‘축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어에 따라 아래 예와 같이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예 물약 $\xrightarrow{(ㄱ)}$ [물낙] $\xrightarrow{(ㄴ)}$ [물락]

- | | | | |
|------|-----|------|-----|
| (ㄱ) | (ㄴ) | (ㄱ) | (ㄴ) |
| ① 첨가 | 교체 | ② 첨가 | 탈락 |
| ③ 탈락 | 교체 | ④ 교체 | 첨가 |
| ⑤ 교체 | 축약 | | |

C08

2016(11월)/고1교육청 11

다음은 표준 발음에 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학생: 선생님, 저번 시간에 ㉠ 흘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셨으니가 ‘막일’은 [마길]로 발음해야 하나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⑥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막일’은 [망닐]로 발음해야 해요.

학생: 그러면 ‘막일’에서 ‘일’이 [닐]로 발음되는 건 이해가 되는 데, ‘막’은 왜 [망]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선생님: 그것은 ㉠ 받침소리 [ㄱ, ㄷ, ㅂ]은 [ㄴ, ㅁ] 소리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닐]이 아니라 [망닐]로 발음해야 됩니다.

학생: 아,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제가 더 알아둬야 할 것이 있나요?

선생님: @ [ㄴ] 소리가 첨가된 후, 이 [ㄴ] 소리가 받침소리 [ㄹ] 뒤에서 [ㄹ]로 발음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물약’을 [물략]으로 발음하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눈 + 요기	㉠	[눈뇨기]
②	내복 + 약	㉡, ㉢	[내:봉냐]
③	색 + 연필	㉡, ㉢	[색년필]
④	들 + 일	㉡, ㉢	[들:닐]
⑤	칼 + 날	㉡, ㉢	[칼랄]



ㄱ

- ㄱ **가변어**
형태가 변하는 단어(64p.)
- ㄱ **가정** [假 거짓 **가** + 定 정할 **정**]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
예) 나는 작년부터 올해에는 시험이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준비를 해 왔다.
- ㄱ **가획의 원리**
기본자에 획을 더해 센 소리를 표현하는 원리 (202p.)
- ㄱ **가획자**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202p.)
- ㄱ **간접** [間 사이 **간** + 接 이을 **접**]
중간에 매개(媒介)가 되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통하여 맺어지는 관계
예) TV 드라마 중간에 나오는 PPL은 광고의 **간접** 효과를 노린 것이다.
- ㄱ **간접 높임**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해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135p.)
- ㄱ **간접 발화**
발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162p.)
- ㄱ **간접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말하는 이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인용하는 것(125, 148p.)
- ㄱ **감탄문**
말하는 이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133p.)
- ㄱ **감탄사**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76p.)
- ㄱ **개모음** [開 열 **개** + 母 어머니 **모** + 音 소리 **음**]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모음
예) ‘ㅏ’, ‘ㅗ’를 **개모음**이라고 한다.
- ㄱ **개혁** [改 고칠 **개** + 革 가죽 **혁**]하다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다.
예) 현 정부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교육 제도를 **개혁**했다.
- ㄱ **객체** [客 손님 **객** + 體 몸 **체**]
문장 내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 ㄱ **객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 (135p.)
- ㄱ **거듭적기**
앞말의 끝소리를 뒷말의 첫소리에도 적는 표기법 (209p.)
- ㄱ **거북하다**
마음이 어색하고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편하지 않다.

- ㄱ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보다 세고 거친 느낌을 주는 소리(14p.)
- ㄱ **거센소리되기**
‘ㅎ’과 예사소리가 결합해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현상(33p.)
- ㄱ **검붉다**
검은빛을 띠면서 붉다.
예) 기대했던 해부학 실습 시간에 **검붉은** 피를 보고 속이 울렁거렸다.
- ㄱ **격 조사** 앞말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76p.)
- ㄱ **겹눈**
한 잎겨드랑이에서 나오는 둘 이상의 싹
예) 이 품종은 **겹눈**이 많이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ㄱ **겹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121p.)
- ㄱ **경청** [傾 기울 **경** + 聽 들을 **청**]하다
귀를 기울여 듣다.
예) 주말인데도 늦은 시간까지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ㄱ **고모음**
발음 시 입을 조금 열어서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 (16p.)
- ㄱ **고약하다**
인심, 품성 따위가 도리에 벗어난 데가 있다.
예) 그 마을은 낯선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고약한** 인심을 가졌다.
- ㄱ **고유 명사**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붙인 이름 (64p.)
- ㄱ **고지식하다**
성질이 단 하나의 방법이나 방향으로 굳어 융통성이 없다.
예) 그녀는 원리 원칙대로 행동하는 **고지식한** 분이다.
- ㄱ **곰곰이**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예) 사람들은 나를 천방지축이라고 하지만 나도 **곰곰이** 생각에 잠길 때가 있다.
- ㄱ **곳간** [庫 곳집 **고** + 間 사이 **간**]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예) **곳간** 열쇠를 너만 아는 곳에 잘 간직하도록 해라.
- ㄱ **공교** [工 장인 **공** + 巧 교묘할 **교**]롭다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
예) 정말 **공교롭게도** 할머니와 아버지의 생신이 같다.

- ㄱ **공권력** [公 공변될 **공** + 權 권세 **권** + 力 힘 **력**]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
예) 주말마다 시위가 계속되자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 ㄱ **공덕** [功 공 **공** + 德 덕 **덕**]
착한 일을 하여 쌓은 업적과 어진 덕
예)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 사람의 **공덕**을 이야기하였다.
- ㄱ **공론** [公 공변될 **공** + 論 논의할 **론**]
여럿이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예) 한동안 머리를 맞대고 **공론**을 하였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
- ㄱ **공양** [供 이바지할 **공** + 養 기를 **양**]하다
옷어른을 모시어 정성을 들여 음식 같은 것을 보내 주다.
예) 어머니는 매일같이 할아버지께 좋은 음식을 **공양**하였다.
- ㄱ **곶** [串 땅 이름 **곶**]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예) 바다로 길게 뻗은 **곶**은 아주 오래 전부터 포구가 되곤 하였다.
- ㄱ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138p.)
- ㄱ **관계언**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뜻을 더하는 단어(76p.)
- ㄱ **관용** [慣 버릇 **관** + 用 쓸 **용**]
오랫동안 써서 굳어진 대로 늘 씀. 또는 그렇게 쓰는 것
예) 국어에서, 고유 명사는 그 나라의 발음대로 적는다는 **관용**이 있다.
- ㄱ **관형격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관형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76p.)
- ㄱ **관형사**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74p.)
- ㄱ **관형사형 어미**
용언의 어간에 붙어 관형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114p.)
- ㄱ **관형어**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114p.)
- ㄱ **관형절**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125p.)
- ㄱ **괴다**
입에 침이 모이거나 눈에 눈물이 어리거나 하다.
예) 슬픈 영화를 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괴**다.
- ㄱ **교정** [敎 가르칠 **교** + 正 바를 **정**]하다
가르쳐서 바르게 하다.
예) 그는 안무를 **교정**해 주기 위해 직접 시범을 보였다.

문법 개념 찾아보기

ㄱ

가변어	64
가획의 원리	202
가획자	202
간접 높임	135
간접 발화	162
간접 인용	125, 148
감탄문	133
감탄사	76
객체 높임법	135
가등적기	209
거센소리	14
거센소리되기	33
격 조사	76
겸문장	121
고모음	16
고유 명사	64
과거 시제	138
관계언	76
관형격 조사	76
관형사	74
관형사형 어미	114
관형어	114
관형절	125
교체	20
구개음화	24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96
규칙 활용	68
기본자	202
긴 부정	148
끊어적기	209

ㄴ

‘ㄴ’ 첨가	33
높임 표현	135
능동 표현	146

능력 부정	148
-------	-----

ㄷ

‘ㄷ’ 불규칙	68
다의 관계	84
단모음	16
단어	48
단일어	51
담화	162
담화의 맥락	162
대등적 연결 어미	121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121
대명사	64
대응 표현	162
독립 성분	114
독립어	114
독립언	76
동사	66
동음이의 관계	84
동작상	138
동화	24
된소리	14
된소리되기	22
두음 법칙	170
띄어쓰기	174

ㄹ

‘ㄹ’ 탈락	31
‘ㄹ’ 불규칙	68
‘ㄹ’ 불규칙	68

ㅁ

마찰음	14
명령문	133
명사	64
명사절	125
명사형 어미	125

모음	16
모음 탈락	31
목적격 조사	76
목적어	110
목청소리(후음)	14
문법 요소	133
문장	108
문장 구조	121
문장 부사	74
문장 부사어	112
문장 성분	108
미래 시제	138

ㅂ

‘ㅂ’ 불규칙	68
반모음	16
반모음 첨가	33
반의 관계	86
발화	162
보격 조사	76
보어	110
보조사	76
보조 용언	66
보통 명사	64
복합어	51
본용언	66
부사	74
부사격 조사	76
부사어	112
부사절	125
부속 성분	112
부정 부사	74
부정 표현	148
분절 음운	12
불규칙 활용	68
불변어	64

비분절 음운	12
비음	14
비음화	22
비통사적 합성어	55

ㅇ

‘ㅇ’ 불규칙	68
사동 접미사	53, 146
사동 표현	146
사이시옷	172
사잇소리 현상	33, 187
상대 높임법	135
상하 관계	86
상형의 원리	202
서수사	64
서술격 조사	76
서술어	108
서술절	125
선어말 어미	135
성분 부사	74
성분 부사어	112
성상 관형사	74
성상 부사	74
성상 형용사	66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14
수 관형사	74
수사	64
수식언	74
순행 동화	24
시간 표현	138
시제	138
실질 형태소	48

ㅅ

‘ㅅ/ㅆ’ 탈락	31
안긴문장	123



차 례

A 국어의 음운 체계	2
B 음운 변동 I	4
C 음운 변동 II	12
D 단어의 구조와 형성	25
E 품사 I	33
F 품사 II	39
G 단어의 의미 관계	42
H 사전 활용	46
I 문장 성분	60
J 문장 구조	66
K 문법 요소 I	75
L 문법 요소 II	83
M 정확한 문장 표현	91
N 담화	98
O 한글 맞춤법	103
P 표준어와 표준 발음법	115
Q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24
R 한글의 창제 원리	125
S 중세 · 근대 · 현대 국어의 비교	127
T 현대 국어 단독 유형	141
U 중세 · 근대 · 현대 국어 비교 유형	195

오해 정답 ?

① '네'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야겠구나.

'네'는 저모음(개모음), '네'는 중모음(반개모음)임.

'네'는 저모음(개모음), '네'는 중모음(반개모음)이다. 따라서 '네'는 '네'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리고 혀의 높이를 낮춰서 발음해야 한다.

오해 오답 ?

② '네'와 달리 입술을 둥그렇게 오므려야겠구나.

평순 모음임.

'네'와 '네'는 둘 다 평순 모음이므로 입술을 펴서 발음해야 한다.

③ '네'보다 혀의 높이를 더 낮아지게 해야겠구나.

낮게

'네'는 저모음이므로 혀의 높이를 중모음인 '네'보다 낮춰야 한다.

④ '네'와 달리 혀의 최고점을 앞에 놓아야겠구나.

둘 다 전설 모음임.

'네'와 '네' 모두 전설 모음이므로 둘 다 혀의 최고점을 앞에 놓고 발음해야 한다.

⑤ '네'와 달리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겠구나.

둘 다 단모음임.

'네'와 '네' 둘 다 단모음이므로 입술이나 혀를 움직이지 않고 소리 내야 한다. 소리 낼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모음은 이중 모음이다.

A 06

정답 ③ * 단모음 체계 파악하기 [정답률 88%]

다음 표를 참고할 때, <보기>의 놀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는?

2017 실시 9월 학평 13 (고1)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서 발음되는 모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서 발음되는 모음	
혀의 앞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의 모양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모음	원순	평순
혀의 높이	평순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내는 모음	원순
고모음	ㅣ	ㄱ	ㅈ
발음할 때, 입을 조금 열어서 혀의 위치가 높은 모음			
중모음	ㅔ	ㅚ	ㅞ
발음할 때, 고모음보다 입을 더 열어서 혀의 위치가 중간인 모음			
저모음	ㅐ	ㅓ	
발음할 때, 입을 크게 열어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			

<보기>

◎ 한글 모음 놀이의 승리 조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 카드를 제시할 것

-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앞쪽에 둔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
-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발음하는 모음
- 입을 조금 벌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을 만큼 높은 상태로 발음하는 모음

오해 정답 ?

③ ㅣ

<보기>에서 제시한 승리 조건인 전설 모음, 평순 모음, 고모음에 모두 해당하는 모음을 찾아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은 'ㅣ'이다.

오해 오답 ?

① ㅐ

전설 모음, 평순 모음이지만, 중모음이다.

② ㅚ

고모음이지만, 원순 모음, 후설 모음이다.

④ ㅘ

전설 모음, 고모음이지만, 원순 모음이다.

⑤ ㅓ

평순 모음이지만, 저모음, 후설 모음이다.



B 음운 변동 I

B 01

정답 ① * 겹받침의 발음 파악하기 [정답률 85%]

<보기>의 설명에 따라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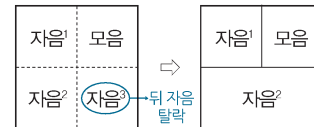
2015 실시 3월 학평 11 (고1)

<보기>

자음 두 개가 음절 끝에 놓일 때, 둘 중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다음 그림은 '철'([철] → [칙])과 같이 끝소리에 위치한 두 자음 중 앞에 있는 자음(자음¹)이 탈락하여 뒤에 있는 자음(자음²)만 발음되는 현상을 시각화한 것이다.



반면, 다음 그림은 [㉠]과 같이 끝소리에 위치한 두 자음 중 뒤에 있는 자음(자음²)이 탈락하여 앞에 있는 자음(자음¹)만 발음되는 현상을 시각화한 것이다.



오해 정답 ?

① 값, 녀 [값], [녀]

'값'은 'ㅈ' 중 뒤에 있는 자음 'ㅅ'이 탈락하고, [값]으로 발음된다.

'녀'는 'ㄴ' 중 뒤에 있는 자음 'ㅅ'이 탈락하고, [녀]으로 발음된다.

오해 오답 ?

② 값, 뉘 [값], [뉘]

'뉘'는 'ㄴ' 중 앞에 있는 자음 'ㄹ'이 탈락하고, [뉘]으로 발음된다.

③ 값, 삶 [값], [삶]

'삶'은 'ㅌ' 중 앞에 있는 자음 'ㄹ'이 탈락하고, [삶:]으로 발음된다.

④ 녀, 삶 [녀], [삶]

⑤ 뉘, 삶 [뉘], [삶]

특강

★ 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 규정

출발점 · 쌍받침의 발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제8, 9항
겹받침의 발음	자음군 단순화(탈락)	제10, 11항
받침 'ㅎ'의 발음	거센소리되기(축약),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비음화(교체) 'ㅎ' 탈락(탈락)	제12항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연음	제13, 14항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후 연음	제15항

E 06 정답 ④ *용언의 활용 파악하기 [정답률 60%]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 실시 6월 학평 12 (고2)

☞ 용언의 활용을 그 양상에 따라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구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규칙 활용 바뀌어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 하고,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불규칙 활용은 ㉠ 어간이 바뀌는 경우, ㉡ 어미가 바뀌는 경우,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오해 정답 ?

④ '치르다'가 '치러'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흐르다'는 '흘러'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기본형	치르다	흐르다
활용형	치러 치르고 치르- + -어 치르- + -고 → 어간 끝 모음 'ㄹ'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함.	흘러 흐르고 흐르- + -어 흐르- + -고 → 어간 끝 모음 'ㄹ'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고, 'ㄹ'이 덧셈김.

오해 오답 ?

① '숫다'가 '숫아'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낫다'는 '나아'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기본형	숫다	낫다
활용형	숫아 숫고 → 어간과 어미가 바뀌지 않음.	나아 낫고 → 어간 끝 받침 'ㅅ'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함.

② '얻다'가 '얻어'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엿듣다'는 '엿들어'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기본형	얻다	엿듣다
활용형	얻어 얻고 → 어간과 어미가 바뀌지 않음.	엿들어 엿듣고 → 어간 끝 받침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뀜.

③ '먹다'가 '먹어'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하다'는 '하여'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기본형	먹다	하다
활용형	먹어 먹고 → 어간과 어미가 바뀌지 않음.	하여 하고 → 어간 '하'뒤에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뀜.

⑤ '수놓다'가 '수놓아'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파랗다'는 '파래'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기본형	수놓다	파랗다
활용형	수놓아 수놓고 → 어간과 어미가 바뀌지 않음.	파래 파랗고 파랑- + -아 파랑- + -고 → 어간 끝 받침 'ㅎ'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고, 어미가 바뀜.

E 07 정답 ① *용언의 명사형과 파생 명사 파악하기 - [정답률 55%]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 실시 3월 학평 12 (고2)

☞ 밑줄 친 단어 중 파생 명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학생: 선생님, '젊음'은 사전의 표제어인데, 왜 '늙음'은 사전의 표제어가 아닌가요?

선생님: 사전의 표제어인 '젊음'은 파생 명사입니다. 반면에 '늙음'은 파생 명사가 아니라 동사 '늙다'의 명사형입니다. '늙음'은 '늙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표제어가 아닙니다.

학생: 둘 다 '-음'으로 끝나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선생님: 사전의 표제어 '젊음'은 어근 '젊-'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로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늙음'은 어간 '늙-'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말로 문장에 쓰이면 서술하는 기능이 있고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말들 중에서 사전의 표제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서+발상

(단서)	꾸며 주는 말	서술 기능	사전의 표제어
파생 명사	관형어	×	○
용언의 명사형	부사어	○	×

해결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면서, 서술 기능이 없는 파생 명사를 찾음.

오해 정답 ?

① 그녀의 수줍음은 늘 티가 났다.

	꾸며 주는 말	형태소 분석	서술 기능	품사	사전의 표제어
①	관형어 '그녀의'	수줍- + -음 어근 접사	×	파생 명사	○

오해 오답 ?

② 나는 가진 돈이 전혀 없음을 깨달았다.

③ 그녀가 많이 먹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④ 그는 경력이 남들보다 많음을 자랑스러워했다.

⑤ 내가 늘 빨리 걸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꾸며 주는 말	형태소 분석	서술 기능	품사	사전의 표제어
②	부사어 '전혀'	없- + -음 어간 어미	○ (돈이 없다)	용언의 명사형	×
③	부사어 '많이'	먹- + -음 어간 어미	○ (그녀가 먹는다)	용언의 명사형	×
④	부사어 '남들보다'	많- + -음 어간 어미	○ (경력이 많다)	용언의 명사형	×
⑤	부사어 '빨리'	걸- + -음 어간 어미	○ (내가 걷는다)	용언의 명사형	×

* 의존 명사

출제

① 명사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눌 수 있다. 가령 '새 물건이 있다.'에서 '물건'은 관형어인 '새'가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립 명사이다. 이와 달리 '헛 것이 있다.'에서 '것'은 관형어인 '헛'이 생략되면 '것이 있다.'와 같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므로 의존 명사이다. 이처럼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며 조사와 결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 ①문단 요약: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의 구분

② 의존 명사는 특정한 형태의 관형어를 요구하는 선행어 제약과, 특정 서술어나 격 조사와만 결합하는 후행어 제약이 있다. 다음 예문에서 (ㄱ)은 선행어 제약을, (ㄴ)은 후행어 제약을 보여 준다.

(ㄱ) 여기 (은 / *오는 / *을 / *오던) 지가 오래되었다.

특정한 형태의 관형어를 요구하는 의존 명사 '지'

(ㄴ)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주격 조사 '가'와만 결합하는 의존 명사 '수'

목적격 조사 '을'과만 결합하는 의존 명사 '줄'

부사격 조사 '에'와만 결합하는 의존 명사 '김'

서술격 조사 '이다'와만 결합하는 의존 명사 '따름'

서술격 조사 '이다'와만 결합하는 의존 명사 '따름'

* ②문단 요약: 의존 명사의 선행어 제약과 후행어 제약

③ (ㄱ)에서 '지'를 수식하는 관형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만 결합하므로 선행어가 제약된다. (ㄴ)에서 '수'는 주격 조사 '가'와, '줄'은 목적격 조사 '을'과, '김'은 부사격 조사 '에'와, '따름'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만 결합하므로 후행어가 제약된다. 이와 달리 '것'은 결합할 수 있는 격 조사의 제약이 없이 두루 사용된다. 의존 명사가 선행어 제약이나 후행어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의존 명사가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예를 고려해야 한다.

* ③문단 요약: 의존 명사의 선행어 제약과 후행어 제약

④ 한편 의존 명사 중에는 '만큼'과 같이 동일한 형태가 조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개의 품사로 쓰이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 한다. 예를 들어 '먹을 만큼 먹었다.'의 '만큼'은 관형어 '먹을'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지만, '너만큼 나도 할 수 있다.'의 '만큼'은 체언 '너' 뒤에 붙는 조사-앞말과 붙여 쓰인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과 붙여 써야 한다.

* ④문단 요약: 품사 통용-조사와 의존 명사

■ 이것이 핵심!

①문단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의 차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	관형어를 필요로 하는 의존 명사
②, ③문단	의존 명사의 선행어 제약	의존 명사의 후행어 제약
	특정한 형태의 관형어를 요구함.	특정 서술어나 격 조사와만 결합함.
④문단	의존 명사와 조사의 품사 통용	
	예) 먹을 만큼 먹었다.	예) 너만큼 나도 할 수 있다.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띄어쓰기가 옳은지 판단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실시 3월 학평 11 (고2)

각 예문에서 '만큼'이 의존 명사로 쓰였는지 조사로 쓰였는지 파악하여 띄어쓰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 오해 정답 ?

예문	판단 결과
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관형어 의존 명사	X → ○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에서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로, 관형어 '노력한'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예문에서 띄어져 있으므로 판단 결과는 ○여야 한다.

> 오해 오답 ?

② 나도 형 만큼 운동을 잘 할 수 있다. 체언 조사	×
----------------------------------	---

'나도 형 만큼 운동을 잘 할 수 있다.'에서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 '형'에 붙여 써야 한다.

③ 그 사실을 몰랐던 만큼 충격도 컸다. 관형어 의존 명사	○
-------------------------------------	---

'그 사실을 몰랐던 만큼 충격도 컸다.'에서 '만큼'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로 관형어 '몰랐던'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④ 시간이 멈추기를 바랄 만큼 즐거웠다. 관형어 의존 명사	○
-------------------------------------	---

'시간이 멈추기를 바랄 만큼 즐거웠다.'에서 '만큼'은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로 관형어 '바랄'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⑤ 그곳은 내 고향만큼 아름답지는 않다. 체언 조사	○
---------------------------------	---

'그곳은 내 고향만큼 아름답지는 않다.'에서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 '고향'에 붙여 써야 한다.

[① 11% ② 47% ③ 18% ④ 11% ⑤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21 실시 3월 학평 12 (고2)

의존 명사의 선행어 제약과 후행어 제약을 적절하게 판단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 ㄱ.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 ㄴ. 그들은 칭찬을 받을 만도 하다.
- ㄷ. 그를 만난 것은 해 질 무렵이다.
- ㄹ. 동생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 ㅁ. 포수는 호랑이를 산 채로 잡았다.